

# 휴가·수당 효과... 6·3 대선 투표관리관 '인기'

## 광주시선관위, 시·자치구 등에 454명 모집 공문 발송 지원자 처우개선... 업무부담 적은 '대선 특수' 영향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3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투표관리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17일 광주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사전 투표일을 5월 29~30일로 정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자 광주시선관위는 투표관리관(6~7급) 규모를 454명(사전투표 96명·선거일 358명)으

로 정한 뒤 광주시, 5개 자치구 등에 모집 공문을 발송했다.

투표관리관의 임무는 △출력한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 △투표 관리 장비·용품 등의 수령 및 투표소 설비 △투표사무원·투표안내요원 업무분담 교육 △투표개시·진행 등 투표사무관리 △투표함 등 투표관계서류의 개표소 인계 등을 물론 선거 방해, 사고 발생 등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됐던 지 다 휴가까지 부여되자 직원들의 관심이 커졌다"면서 "4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관리관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말했다.

최근 휴가 지급, 수당·식비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서 선거사무에 대한 호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로 총 2일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투표관리관의 수당도 제20대 대선(22년·16만원), 제22대 총선(24년·19만원) 등으로 올랐다.

이번 대선 당일에 투입되는 투표관리관에게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7000원이었던 식대도 물가상승을 고려해 900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대선이라는 특수성도 작용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1장인 데다 비례대표 후보도 없는 등 비교적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인기 요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휴식권 보장과 처우 개선으로 이전과는 확실히 모집 분위기가 달라졌고, 직원들의 호응도 역시 높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SOCIETY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 오늘의 날씨

☀️ 예보 05:57    🌧️ 달림 ---:--  
☀️ 예보 19:07    🌧️ 달림 08:43



## 광주 5개 자치구,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어린이집 5세 외국인 아동 83명 혜택

광주 5개 자치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17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4월 정례회를 통해 어린이집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0월 정례회에서 5세 외국인 아동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구비 100%)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내·외국인 아동은 기본 누리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로 1인당 28만원을 받고 있다.

이중 유치원에 다니는 내·외국인 아동은 5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5개 자치구는 사업비 총 498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외국인 아동 83명(동구 2명, 서구 7명, 북구 1명, 광산구 7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4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도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기관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차별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국인·외국인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스마트 그늘막 사전점검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17일 광주 동구주 주민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 직원들이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과 태양광 기술이 접목돼 온도와 바람에 따라 자동 개폐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돈 빌려 준다더니... 현금 갈취한 20대 구속

개인정보 유출 등 협박

돈을 빌리려는 이들을 상대로 되레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경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을 가로한 혐의(공갈)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20대 여성 B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 개인정보 등을 받아낸 뒤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B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현금 600여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국을 돌며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6일 범인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A씨의 추가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부경찰은 A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죄책을 묻는 동시에 보다 높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 수사기관의 경우 A씨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피해자가 적고, 액수도 크지 않아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판단했으나 서부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 예방 효과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철저한 보완수사로 A씨를 구속했다.

윤용성 기자 yu404@

## 전남 3곳서 멸종위기·천연기념물 '팔색조' 관찰

### 2019~2021년 27건 출현... 관목림 울창한 곳 등 서식 국립공원공단 "시민과학자 네트워크 구성·보호 조연"

전남 고흥, 해남, 진도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가 자주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팔색조 출현은 총 82건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27건으로 경남(36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7건, 전북 4건, 강원 3건, 경기 2건, 충남 2건, 충북 1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2개 국립공원, 2개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인접한 3개 지역 등에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남 고흥군, 해남군, 진도군과 경남 통영시, 거제도, 남해군 등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 팔색조 발견 확률이 높았다.

특히 고흥군 팔영산, 해남 두문산 등에서는 평균 2~3개 지점에서 조사해 팔색조 1~2마리를 발견했다.

무등산, 내장산 등 내륙 지역은 평균 5개 지점을 조사해야 팔색조 1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덕유산, 계룡산, 북한산, 오대산, 치악산, 소백산 등 내륙에 위치한 7개 국립공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팔색조는 몸길이 16cm 전후, 체중 80~150g으로,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과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팔색조는 해발고도 500m 이하의 낮은 산비탈 지형, 낙엽성 숲의 경사면, 상록수 숲 등 숲이 습하면서 어둡고 울창한 곳을 선호한다.

국내에서 전국 단위로 팔색조 개체수가 집계된 최초 기록은 1997년부터 2005년



까지 실시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로, 전남 4회, 부산 3회, 제주 2회, 충북과 경남 각 1회씩 총 11회가 관찰됐다.

공단은 팔색조 등 멸종위기 조류가 사라질 경우 생태적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 시민과학자 네트워크 구성을 조연했다.

그중 해의 사례로 일본 고치현의 팔색조 보호활동을 꼽았다.

고치현에서는 팔색조 보호를 위해 고치현청, 지역사회 등이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 환경 보전 활동을 펼쳤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	15~26
목포	☀️	14~18
여수	☀️	14~20
순천	☀️	13~25
구례	☀️	12~27
광주	☀️	12~22
임도	☀️	14~23
전남	☀️	12~17
고흥	☀️	11~23
진도	☀️	12~20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목포	미물(고)	05:10 / 17:01
	셸물(저)	10:20 / 22:15
여수	미물(고)	11:38 / ---:--
	셸물(저)	05:48 / 17:35

## 야구장서 여성 불법 촬영

야구장에서 여성 관중들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광주 북부경찰은 17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70)를 입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 관중의 얼굴과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관중이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끝에 A씨의 범행이 드러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산하 기자 goback@

##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케냐사업장서 '나눔 캠페인'

### 전·현직 교장 등 13명 참여... 환경 개선·교육봉사 등 진행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는 오는 18~27일 '2025 글로벌 희망 나눔 캠페인'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사업장을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배움·나눔으로 함께 꿈을 키워가는 세계시민 양성 △교육 환경 중요성과 아동보호 인식 고취 △세계인과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활동 △민주 시민 정신 함양 △국제봉사를 통한 학생·교원 평화 감수성 신장 등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고등학생 어린이들을 지원한다.

이번 케냐사업장 방문에는 정병원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장과 월드비전 교역 후원자를 포함해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교장, 교육공무원, 출입기자 등 총 13명이 동행한다.

국가수위 146위·인구 5244만명(2023·IMF기준)의 케냐는 하루 3.65달

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70%에 달할 정도로 빈민국이다. 반면 빈곤을 겪는 아동은 47.7%에 달한다.

이중 이시올로-올도니로는 건조한 지역으로 목축을 주 생계 수단으로 삼아 생활하기에 가뭄에 취약한 곳이고, 아동들은 학교에 남아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캠페인 기간 케냐 이시올로-올도니로(Isiolo-Oldonyiro) ADP 사업장 지역에 초등학교 교육봉사, 식수펌프 설치, 지역개발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사업장을 확인한다.

또 키완자(Kiwanja), 룡고피토



월드비전이 '2025 글로벌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참가해 해외사업장 봉사 봉사자 나선 모습. (Longopito), 랫(Rapp) 학교에서 수업 참관, 아동과의 프로그램(수업, 게임) 참여 등에 나선다.

있도록 진행한 '스쿨업 사업' 성과도 직접 조명한다.

이와 함께 여성 자립 프로젝트 사업(식수사업, 소득증대 사업) 등에 대해서도 들려다본다.

정병원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장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아들이다"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한 아이를 품어주시고 기도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 때 고아와 남편을 잃은 부인을 돕기 위해 시작된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독교 글로벌 NGO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